

동서대, 2019 캠퍼스 아시아 개최

한·중·일 대학 공동 운영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 열려



▶동서대학교 '2019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

지난 3월 1일, 2019년 CAMPUS Asia 이동 캠퍼스 개강식이 동서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렸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국 동서대와 일본 리츠메이칸대, 중국 광둥외국어무대 등 한·중·일 3개국 대학이 아시아 인문학 분야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특화 프로그램이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하는 3개국 대학의 학생들은 한·중·일 3개국 캠퍼스를 이동하면서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3개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공유한다.

개강식에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서대 동아시아학과 신입생 20명과 학부도 24명이 참석했다. 또 2019학년도 이동 캠퍼스 초청 학생들은 광둥외국어무대 학생 20명, 리츠메이칸대 학생 19명과 함께 동서대 3학년 30여 명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홍규 교수와 제정숙 교수, 오자사 교수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비교과 과정, 학사일정,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 등에 대

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원범 캠퍼스 아시아 사업 단장은 개회사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3개국 학부생들이 함께 한·중·일을 이동하며 공부하는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3국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 사회 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며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로 거듭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선배들이 한·중·일 3개국 학생들이 개강식에 참석해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그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 4학년 정주선 학생은 "제가 벌써 4학년이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오늘은 동아시아학과와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께 조언과 응원의 말을 전하려고 한다. 1학년 학생들에겐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라고 있지. 이게 무슨 대학생이야.'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1년간 열심히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더 많은 친구를 만날 것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2학년 학생들에겐 부럽다고 말해주고 싶다. 저는 2학년 맨 첫 유학이라는 이유로 무서워서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무서워서 복판에서 만두만 일주일 먹기도 했었고, 일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모든 일들을 무서워하지 마라."라는 자신의 경험이 담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 3학년 코이케 마호 학생은 "저희 2기생은 이제 두 번째 한국 유학을 시작하려고 한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작년과 달리 두 번째라서 약간 마음 여유도 있고 여기 동서대도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곳인 것 같다. 언어 실력도 작년보다는 훨씬 늘었기 때문에 언어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마지막 한국 유학이기도 하니까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후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유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중국 광둥외국어무대 3학년 나영인 학생은 "캠퍼스 아시아 개강식에서 3학년 중국 학생들을 대표하여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아직 3학년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작년에 동서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있어서 마지막 학기인 이번 학기에도 한국에서의 유학이 너무 기대된다."라며 "올해도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한 학기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International College 입학식

외국인 유학생들의 꿈을 향해



▶International College 입학식 기념사진

지난 3월 13일 International College 입학식이 소량아트홀에서 열렸다. International College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단과 대학이다. 소량아트홀 1·2층이 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뮤지컬과 학생들이 열정적인 환영 공연을 선사했으며, 재학생들은 후배들에게 입학 축하와 함께 유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했다. 조금은 얼어붙었던 대회의 분위기가 선배들로 인해 풀어지는 듯했다. 신입생 대표들은 유학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김정선 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서대에서 머무르는 동안 배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최상의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교수들과의 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산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1학기에는 미국·중국·일본·독일·러시아·스페인·리투아니아·베트남·파테말라·칠레·가나 등 세계 40개국에서 동서대로 유학을 왔다. 유학생의 국적은 중국·일본·인도·인도네시아·태국·네팔 등 아시아 지역이 16개국으로 가장 많다. 미국·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칠레·콜롬비아·파나마·페루 등 아메리카 대륙의 11개국에서도 꿈을 펼치러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으로 떠났다. 독일·러시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

스페인·폴란드 등 유럽은 6개국, 가나·나이지리아·모잠비크·앙골라·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 등 아프리카는 7개국이다. 디자인·영화·영상·IT·게임 등 동서대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조금 낯설 수 있는 타지로 떠나는 것이다.

유학 유형은 학부 복수학위가 318명으로 가장 많다. 국제 복수학위는 각자 모국에서 2~3년을 공부한 뒤 동서대로 유학을 와 1~2년간 공부한 뒤 양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이어 학부 교환학생 70명, 언어연수 52명, 석사과정 21명, 박사과정 21명, 학부 21명, 석사 교환학생 1명이다.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64개국 1100여 명에 이른다. 신입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은 2월 28일 두 차례 열렸다.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우리 대학의 배려였다. 2019-1학기 오전 10시에는 영어로, 오후 2시에는 중국어로 행사가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 및 캠퍼스 생활 안내, 기숙사 규칙, 보험 설명, 범죄 예방교육 등을 했다. 2월 28일~27일에는 입학하는 유학생들을 김해공항에서 맞이해 학교로 안내하는 입국 픽업 서비스도 진행했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2019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개시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집중 수업 받아



▶2019 동서 글로벌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2019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이 2019년도 1학기의 출발과 함께 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International College는 '2019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입학식을 열고 학생들이 보다 큰 세상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올해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에는 총 164명의 신입생이 지원해 서류심사,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3명이 선발됐다.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 학생들은 학급당 15명 정도의 소규모로 나뉘어 원어민 영어 교수들로부터 영어로 집중 수업을 듣는다.

동서 글로벌 영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기당 10학점씩 1년 동안 20학점

을 취득한다. 집중적인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은 16시간.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발음, 어휘, 문법, 프레젠테이션, 공인영어 학습을 배운다. 여름방학에는 자매대학인 미국 호프 국제대학교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와 해외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한다.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영어뿐 아니라 전공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 기초(전공)도 최대 2과목(6학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9학년 최우진 학생은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를 갈망하며 들어왔던 나는 좋은 기회가

말게 되어 글로벌 프로그램의 영어 면접을 보게 되었고, 3 대 1 이상의 경쟁한 경쟁률을 뚫고 온 좋게 16기 학생이 되었다. 매일 아침 9시 수업이라 친구들에게 동서대 리듬 스타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지만, 대학교 1학년 동안 영어만큼은 확실하게 휘어잡고, 동서대를 빛내는 리듬 스타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영어학과 19학년 남강민 학생은 "영어를 잘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며 입을 열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 방향과 몇 가지 규칙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규칙은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쓸 수 없고 오직 영어만 써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 규칙과 더불어 교수님의 강의는 저를 설레게 했다. 영어 실력이 늘려면 결국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말로 영어공부를 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영어를 배우는 이 프로그램은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다자인 대학 19학년 김현진 학생은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앞으로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잡아 더 성장한 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워 날마다 다음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동서대, 창업지원 지역 거점 역할해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 기관 선정



▶동서대 뉴밀레니엄관 전경

동서대학교가 지난 3월 20일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3년간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2018년 성과 평가 결과를 인정받아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다. 기존의 창업선도대학, 스마트벤처캠퍼스, 세대 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동서대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동서대는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창업 교육, 아이템 사업화 및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창업지원단 산하에 사업 지원센터, 창업 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배치하여 부서 간 양방향 협업과 전략적 창업 성장 지원을 통해 2016년 창업선도대학 사업 수행 이래 창업기업의 매출실적과 투자유치 등에 있어 20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이 결과 동서대학교는 2018년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18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부·물·경 권역 4년제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정도는 창업지원 단장은 "동서대만의 창업지원 인프라와 특성화 강점을 살려 실질적 창업기업 배출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해마다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망한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기 위한 동서대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바이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대학생활의 소중한 한 페이지, 동아리

동서대학교 동아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 동아리 홍보 모습

대학생활에는 다양한 추억들이 있을 것 이지만 그중에서도 동아리활동은 대부분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매겨지곤 한다. 동서대학교에는 총 2개의 동아리가 존재하는데 문화예술분과, 봉사 학술 분과, 체육분과 3가지의 분과로 나뉘져 있으며 각 동아리마다 특성이 다양하다. 다음의 간단한 동아리 소개를 통해 각 동아리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마하-극예술연구회 연극 동아리. 어우러짐과 두루 원만함이라는 창단 이념 하에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한다. 신입생 워크숍 공연과 정기 공연 및 MT 행사가 있다.

외가람-여형 동아리. 다신 돌아오지 않을 20대 때 볼 수 없고 접점도 없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 여러 경험과 즐거움을 찾는 동아리이다.

MIDMIX-음악의 각종 장르를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즐기고 연습하며 공연과 버스킹을 통해 회원들의 자신감 향상 및 유대감 형성, 그 외로 편곡, 작사, 개사를 비롯한 자유음악을 지향하는 동아리이다.

언플러그드-순수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뿐만이 아닌 베이스 기타, 전자 기타, 드럼, 피아노, 보컬까지 종합적인 음악 동아리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동아리로써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와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매년 5월과 6월 사이에 정식 공연이 있다.

ALIVE-유일한 록 밴드 동아리.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즐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합주를 진행하고 다양한 공연에도 참가한다.

에소리-사물놀이 동아리. 전통의 소리, 즉 사물놀이를 배우고 즐기는 모임이다. 매주 정기 연습을 통해 악기를 익히고 각종 교내외 공연과 동아리 정기 공연 등의 활동을 한다.

BLACK-댄스 동아리. 완전한 해방과 활동을 열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대외활동과 교내활동으로 사회성과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며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유평- '유평'이란 같은 락 밴드 동아리를 의미하는 만화 동아리. 주제를 맞추어 일러스트를 그리는 전시회를 진행하며 동아리 부원의 그림을 한 데 모아 회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타이콘-흑백사진 동아리로 인화작업을 할 수 있는 암실이 구비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필름 현상 및 인화의 과정을 배울 수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출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학기 말에는 전시회를 연다.

필름웍스-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영상에 대해 연구하고 제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학기마다

총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모임을 가져 팀별로 영상을 제작한다.

하이드-동서인들의 숨겨진 음색과 실력들을 찾아 함께하는 동아리라는 뜻이다. 거리를 나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수 없는 평등한 동아리를 지향한다.

한또마기-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이 좋게'라는 의미를 가진 문학 문화 동아리.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더사세-봉사 동아리. 달마다 정기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봉사활동 리스트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하랑-메가 학술 동아리.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교내 지원금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거나 대회에 나가는 활동을 한다.

백양-국제 로터리에 속한 대학생 연합 봉사 동아리. 월 1회 만남을 통해 선후배 간 친목을 쌓고 빛채 주에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DFLC-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서 설립한 동아리로써 주로 기업분석을 하며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가치 투자를 공부한다.

CAN-컴퓨터 학술 동아리로 주로 C언어, Java, C++, C#, 유니티 등의 스터디를 진행한다. 이외로 포토샵, 일러스트 3D 관련 등의 스터디도 한다.

라포-봉사 동아리. 주로 봉사를 하는 곳은 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 보호 센터이다. 그곳에서 교구를 가지고 함께 만드는 교육 봉사를 진행한다.

검도-안전한 장비를 착용한 뒤 죽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타격하는 운동을 하는 검도 동아리. 상호 간의 연습을 통해 체력,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우정을 얻을 수 있다.

글리터-볼링 동아리. 핵심은 볼링이지만 선후배 간의 끈끈한 교류관계 등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활동한다.

DASH-축구 동아리. 매주 일요일마다 초정팀을 1팀 혹은 2팀을 불러 9:30~14:00 동안 축구를 한다. 학기당 한 번씩 제부대회와 함께 리그식 대회를 여는 데 매년 참가 중이다.

레드콕스-배드민턴을 통해 운동 실력과 친목을 모두 함께 키워나가는 배드민턴 동아리이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진행한다.

블루 돌핀스-미식축구 동아리. 전국 대회에 매년 출전하며 대회는 춘계, 추계대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에이스-야구 동아리. 한 달에 2번 토요일 삼각 구장과 용당캠퍼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며 또한 부산 내 대학 야구 동아리끼리 리그를 만들어 운영한다.

여울-태권도 동아리. 매주 2회 운동을 하면서 동기와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 기초체력 증진 그리고 대회 참여를 주로 활동하고 있다.

JOCKS-농구 동아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체력훈련부터 기초훈련, 전술훈련을 한다. 부산 대학 농구 연맹 소속으로 주기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는다.

HOOK-농구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같이 농구를 배우고 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매주 금요일 정기연습이 있으며 춘하추동 계절마다 재부대회가 있다.

안전제일-통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각종 보드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이다. 주된 활동은 공간시간, 비교과 시간 등 편한 시간에 전자정보관 앞에서 보드를 타는 것이다.

박준진 기자
pahyork@gmail.com

하나로 통합된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처, 창의인재육성처가 하나로 통합되어 학생·취업지원처가 되었다.

이처럼 새로 단장된 학생·취업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행정 구현과 소통을 통한 학생들과의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학생 복지 지원, 교내외 및 국가장학 등 각종 장학금 지원, 사회봉사·장애학생지원, 학생상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취업지원처는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월별 프로그램, 상시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주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월별 프로그램 중 3월에는 학생 주자권 발급 신청, 시외 통학버스 신청, 교육·교역자, 형제자매, 한마음 장학, 장학 사정관계, 동서 디딤돌 장학, 지역사회봉사단, Peer Counseling 정서지원 멘토링, 자기개발 역량 강화 교육, 폭력 예방교육, 동서 W 커리어코칭, DSU SMART Women 9기, DSU WCDC 서포터스 9기, 장기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가 있다.

4월에는 동서 BDAD 장학, 선후배 멘토링이 있으며 5월에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자기성장 집단상담, 자살예방교육, 함께 생각하는 인권 특강, 부산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가 있다.

6월에는 장학 사정관계, 동서 디딤돌 장학, 단기 현장실습, 7월에는 국제기술봉사단 낙동강환경봉사단이 있다.

8월에는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이 있으며 9월에는 교육·교역자, 형제자매, 한마음 장학, 장학 사정관계, 동서 디딤돌 장학, 지역사회봉사단, Peer Coun-

selling 정서지원 멘토링, 자기개발 역량 강화 교육, 폭력 예방 교육, 장기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이 있다.

10월에는 동서 BDAD 장학, 채용박람회,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 교육, 함께 생각하는 인권 특강이 있고 11월에는 국가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학부 이동 희망자를 위한 진로설계 집단상담,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자살예방교육, DSU-TED '나보다 게으른 사람 있으면 나와봐!'가 있다.

12월에는 장학 사정관계, 동서 디딤돌 장학, 단기 현장실습이 있으며 2월에는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이 있다.

다음으로 상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증 발급 신청, 운동장 사용 신청, 잔류 허가 신청, 학생 보험 청구, 교수 학습 지원, 생활복지 지원, 진로상담, 시설 설비 지원, 투약 및 외상 처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지역사회 연계 금연 프로그램 안내, BMI 혈압·혈당 시력 측정, 생리 공결 인증서 발급, 구급상자 보건실 물품 대여 서비스, 봉사활동 인증관리, 교외 사회봉사 공모 지원, 개인상담, 심리검사,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이 있다.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과진로1, 취업과진로2, 달란트와 진로, 나만의 달란트 설계, To Be 달란트 개발, 여성과진로1, 여성과진로2, 단기 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OJT), 일학습병행제(OFF-JT)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취업 프로그램으로는 K-Move 스텝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학생·취업지원처는 끊임없이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박준진 기자
pahyork@gmail.com

일하고 배우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한다

IPP형 일학습병행이란?



▶ IPP 일 학습 병행 참가자 학생들

현재 동서대학교에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일학습병행이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의 주관 아래에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IPP 일학습병행이란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약자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의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인재 육성 제도이다. 과정에 따라 장기현장실습생(IPP) 또는 학습 근로자(일학습병행)로서 산업현장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 훈련을 통해 전공 및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선정에 따라 2018년부터 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 지원금 93억, IPP 장학금 18억 원 등 120억 원이

상의 금액을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IPP(장기현장실습) 과정의 참가대상은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학점은 전공 선택으로 1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월 최저 임금 이상으로 실습 지원비가 제공된다.

일학습병행(졸업 전 취업, 학습 근로자) 과정의 참가대상은 4학년 재학생 즉 6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OFF-JT는 4개월을 대학에서, OJT는 7개월을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학점은 각각 전공 12학점, 전공 선택 15학점을 받게 되며 이는 IPP와 달리 등록금 및 급여를 혜택으로 지원받게 된다.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가하고 싶다면 학부별 IPP 사업설명회 참가 사전 현장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IPP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IPP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참가



▶ IPP 사전 오리엔테이션 모습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IPP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음은 현재 IPP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선배들의 그동안의 생생한 참가 후기를 밝힌다.

김상기(소프트웨어공학전공)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회사 업무에서 적용하거나 멘토님을 통해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기본적인 언어 틀은 같지만 실무에서의 적용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일을 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현장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표님의 권유로 최종 ㈜아이피미라클에 취업하여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2019년은 'We Must Go On, 반드시 이룬다!'로 사훈을 정하셨

는데 저 역시 일일으로서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현지(국제물류학과) "IPP 장기현장실습의 최대 강점은 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최종 진로 설정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서 자신의 적성과 업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기업과 학생의 니즈가 일치하면 취업과 연계되어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성과 맞지 않다면 진로 수정이 가능하고 직장생활과 업무 경험을 스펙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 이해도가 높아졌고 현업에 대한 감각이 생겼으며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취업 계획과 실행 방법을 바꾸어 뚜렷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준진 기자
pahyork@gmail.com

진정한 봉사의 땀방울 쏟겠다

지역사회봉사단 발대식 열려



▶ 지역사회봉사단 학생들의 모습

학생·취업지원처는 3월 13일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지역사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한 약 1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1학기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했다. 또한 봉사활동을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 또한 마음에 새겼다.

발대식에서 진행된 선서식에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한 자세로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겠다.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겠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우리는 양보와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겠다. 우리는 동서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지역사회봉사단 대표와 함께 발대식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선서하였다.

지역사회봉사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2019-1학기 동안 여러 기관에서 22시간 이상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봉사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센터, 자원봉사포털 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으며 2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교양과목 1학점을 부여한다.

선서 후에는 봉사활동에 임하는 자세 및 봉사를 통해 1학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1100여 명의 학생들과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지역사회봉사단 발대식이 종료되었다.

앞으로 남은 1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봉사단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내면을 단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준진 기자
pahyork@gmail.com

교외 취업 지원, 어디까지 지원해줄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3가지

2019년 많은 취업 준비생은 “올해는 꼭 취업한다!”라는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는 마음과 다르게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난관을 겪게 된다. 금전적인 비용, 인턴을 통해 실무 체험을 어디서 해야 할 지등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외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있다. 교외에서도 취업 준비생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촉진 수당’을 개편한 정책이며, 일자리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정책이다. 기존의 청년 구직촉진 수당의 경우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취업 성공패키지’라는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3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지원금이었다면 현재는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이 된다.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이며, 현금 인출은 되지 않고 유류이나 도박 업종 등 취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34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이어야 하며, 재학생은 참여 불가능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사람은 합격 일이 졸업 일로 간주하며, 병역 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2019년 3월 기준으로 졸업 및 중

퇴 시기가 2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졸업 예정, 졸업유예,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지원금의 활용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으로 불참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하자.

2)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인턴제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역량 중 하나인 인턴 경험.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인턴 경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 이 정책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청년 취업 인턴제는 최소 2주부터 최대 3개월까지 기업에서 취업인턴제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임금 체불,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청년들은 걱정 없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 근무 기간 동안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여 정당하게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 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인턴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cudsus 내일 채용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원영 기관으로 신청을 한 후, 사전교육 및 면접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진다.

3)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년 취업 아카데미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준비생이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훈련 기관은 기업, 대학, 민간 우수훈련 기관이 참여하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500시간 내외로 연수를 받는 장기과정과 300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단기과정과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 이후에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준비생은 상담과 경력을 관리받으며 능률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생 대상과 자격은 융합인재 양성과정(창직과정) 해당 과정 비전공자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졸업예정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예정자, 현장 맞춤 인재 양성과정(단기과정) 해당 과정 분야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 예정자, 창직 과정은 대학 재학생 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예정자이다.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은 대학 졸업예정자만 가능하고 창직 과정은 대학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비 전액 지원에 대학에 따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카데미 특성에 맞게 출결 관리가 중요하다. 참여하는 방법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연수 과정·개설 과정 안내 및 참여 신청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한 후 상세히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청년 정책 블로그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서포터스 실패하지 않는 법

나에게 꼭 맞는 서포터스 찾는 방법

요즘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 “저에게 맞는 서포터스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라는 고민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서포터스는 취업을 위한 스펙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서포터스도 경쟁시대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서포터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1) 서포터스 종류 꼼꼼히 검색해보기

모집 일정, 선발 인원, 우대사항, 활동혜택 등등 모집요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제 지원서를 마감하는지 미리 체크하여 확인하고, 서포터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 내가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서포터스를 하기 전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가장 중요한 꿀팁은 포스터 혹은 모집공고 등에 지원 팁이 세밀하게 녹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한 검토만이 서포터스의 합격을 부를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이전 기수의 활동들을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포터스 중에서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기수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면 어떤 노력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해당 활동에서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서포터스의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고 이전 기수들의 활동 후기나 합격후기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서포터스의 지원서에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반영한다면 합격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2) 서포터스를 하는 목적을 생각하자

서포터스를 하기 전 내가 왜 서포터스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등 개개인마다 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취업이 목적이라면 취업을 하기 위해 서포터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취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추려보고 해당 기업의 서포터스 활동을 위주로 찾아보아야 한다. 지원 기업의 서포터스 경험은 지원에도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기업 분위기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요즘은 서포터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포터스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3) 서포터스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기

서포터스 활동이 중요한데 갑자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당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포터스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미션과 과제를 요구하는 서포터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서포터스 활동이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뺏아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서포터스 경험자가 제일 꺼려하는 대외활동 유형 중 하나가 활동이 과도한 서포터스 활동이라고 한다. 본인의 개인생활과 밸런스를 잡맞출 수 있는 서포터스를 골라보아야 한다.

4) 하고 싶은 서포터스를 골랐다면?

이제 지원서를 작성할 차례이다. 여느 지원서가 그렇듯 서포터스 자소서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

유양식의 경우 더욱 그러한다 개인의 경험을 녹여 강조해야 하는 핵심 역량을 무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나열식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나를 보여주면서 틀에서 벗어나 보여줄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양식이 주어져있는 경우는 질문마다 의도가 다르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한 항목에 한 가지 역량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 질문에 나열식 역량을 언급한다거나 이전 항목의 역량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이지만 오타와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기본이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원서를 다 작성하더라도 오타와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본 후 제출하자.

5) 서포터스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서포터스 활동을 한 경험자들은 대부분 이전에 지원했던 자소서나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자료들을 새로운 서포터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좋지 않다.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 넣은 자소서는 면접관들은 읽어 보면서 거의 한눈에 알아챈다.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서를 귀찮더라도 최대한 진솔하고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이 있어 훨씬 수월할 수 있어도 첨부파일을 올리는 란이 있다면 무조건 첨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전에 활동했던 일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전체를 업로드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좋고, 본인 해당 자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같이 적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자료 출처 : 독취사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블라인드 채용의 진실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사진 출처 - freepick

취업을 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적다 보면 수많은 문항들을 기입해야 한다. 나의 출생지역과 용모와 신체조건, 학력과 출신 학교, 가족관계에 대해서 적 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다 적어야 하는 걸까?” 혹시나 기입한 답들로 인해 취업의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취업 준비생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되었다. 현재 2019년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정말 스펙을 보지 않는 걸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스펙 없는 채용이라고 해서 정말 스펙을 하나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블라인드 채용은 ‘완전형 블라인드’가 아니라 ‘선택형 블라인드’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편

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해 하게 되는데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사진, 학력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인 조건 학력 등은 기재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직무역량 검증은 강화한 블라인드 면접이다. 필기평가와 면접평가에서 직무 실력을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한다.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한 경험과 상황 면접 등을 통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며, 면접위원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각 기업마다 중요시한 요건이 있었는데 스펙 완화와 자기소개서를 강화를 더 중요시하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공기업이 있었으며 일정 자격이 된다면 모두 서류를 통과하는 코트라와 동서발전 등이 있었다. 온라인 인성 검사로 서류를 합격하는 중부발전, 식품연구원 등이 있었고, 스펙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한국전력의 사례도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NCS

스펙을 보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나의 직무능력을 알 수 있을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일컫는 말이 직무능력이다.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게 NCS(국가 직무능력표준)이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NCS는 사업관리, 금융/보험, 법률/경찰, 건설, 기계 등 24개 직군, 897개의 직무 기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총 8단계의 직무 수준도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신규직원 대상 요구 수준은 3~4단계 수준으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NCS를 준비한다면 먼저 내가 지원 하는 기업이 어떤 직무능력 기준을 요구하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NCS는 답을 외워서 문제의 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 직무에서 실제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좋다.

NSC의 3가지 유형

1. NSC 기반 서류전형 : 공고된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모집 직무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지원자의 자격 사항, 교육 이수 내용, 경험 및 경력사항을 해당 직무와 연관하여 적는 것이 좋다. 2. NSC 기반 필기전형 : 채용공고에 제시된 필기 과목을 파악해 해당 유형을 준비하고, 직무 설명 자료에 제시된 직업기초능력 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배워야 유리하다. 3. NSC 기반 면접 준비 : 경험 면접, 상황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등 상황에 따라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며 채용공고에 정확하게 제시된 면접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다.

자료 출처 : 사람들 블로그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사진 출처 - freepick

향후 5년간, 전 세계의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인재 채용에 앞장서고 있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들 거듭날 수 있는 자격증 추천 5가지와 직무 자격증 취득 시 유의할 점까지 살펴보자.

1) COS 코딩 활용능력 평가

COS란 ‘Coding Specailist’의 약자로 YBM에서 시행하는 전문 코딩능력 평가시험이다. 스캐러지, 엔트리(블록 코딩)에 대한 자격증으로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용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매년 응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COS는 파이썬(Python), C, C++, 자바(JAVA)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사고력과 창의력, 논리력을 측정한다. 100점 만점에 1급 700점 이상, 2·3·4급 모두 600점 이상 획득 시 취득할 수 있으며, 각 급수 모두 10분형씩 출제된다.

2) 사회조사 분석사

기업이나 중앙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 수행, 결과 통계처리,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맡는다.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조사방법론 1, 2 각각 30문항, 사회통계 40문항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하여, 총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은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의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에는 응시자격을 제한이 없지만, 1급의 경우 해당 종류의 2급 자격을 취득 후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혹은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이들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필답형 시험은 필기시험의 조사방법론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서술식 시험인 점을 알아두자. 더불어 작업형 시험은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통계프로그램 활용해 직접 결과 값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실제로도 기업에서 채용 전형 시 관련 자격증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빅데이터 전문가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 자격증 추천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는 취업 키포인트로도 통한다.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오직선다 객관식이다. 1급은 2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이론 범위에 빅데이터 기획 방법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빅데이터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된다. 실기로는 빅데이터 기획과 통계분석 프로그램 R을 활용하는 시험이 있다. 2급의 경우 빅데이터 이해, 경영과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기획,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기술 총 5과목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4)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3D 프린터 운용기능사의 자격증은 작년 12월 처음으로 시행된 신생 자격증이다.

우리나라는 3D 프린팅 기술을 비교적 빠르게 흡수하긴 했지만 그간 전문성을 평가할 인증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신생된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증은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지며, 필기의 경우 객관식 60문항(총 60분), 실기는 4시간가량의 작업형으로 치러진다.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5)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관리기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해 지자체 및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전략을 수립·이행에 전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시험은 1차,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시험과목은 기후변화개론, 온실가스 배출의 이해, 온실가스 선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온실가스감축 관리, 온실가스 관련 법규로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차시험은 필답형으로 심합시험은 따로 없으며 온실가스 관리 실무에 대한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료 출처 : 더유니브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책 속의 풍경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



- 책 제목 : 꾸뻬씨의 행복 여행
- 책 저자 : 프랑수아 틀로로
- 출판사 : 오래된 미래

아마 대부분은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익숙함을 느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책일 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되며 더욱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깨달음을 준다.

책의 주인공인 꾸뻬씨는 유능하고 인정받는 의사이다. 그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환자를 대했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자신이 사람들을 진정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무엇 덕분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가를 알고 싶었다. 자신의 환자 중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뻬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 여행을 결심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배움을 기

록하며 행복의 비밀에 한층 가까워진다. 여행이 끝나고 자신의 생활로 돌아온 꾸뻬는 환자들에게 행복의 배움을 나누며 그의 일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그의 행복 여행이 끝이 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행복이란? 또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행복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들이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꾸뻬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은 그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 책에서도 행복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한다. 기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취미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며 생기는 흥분한 상태의 행복, 비교를 통해 혹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삶에 대해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생기는 평화로운 행복,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행복의 원인이라 칭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은 책에서처럼 큰 틀로 나눌 수 있지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순간의 행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꿈이나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결국에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그 마음은 전 세계 누구든지 같을 수밖에 없기에 공간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책의 내용 중 <배움,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책을 읽는 내내, 궁금증을 자아냈던 부분이다. 꾸뻬는 중국에서 만난 수도승의 말을 듣고 이 글귀를 적었다. 하지만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왜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책이 끝날 무렵,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목표

는 많은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행복은 순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마음을 바쳐 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지붕이라고 표현한다면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그 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다를 것이다. 행복한 삶의 감칠맛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뜬구름과 같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행복이 목적이 된다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사람이나 돈이 행복의 목적이 되면 어떨까? 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부서졌을 때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 속에서 꾸뻬는 ‘이 책이 당신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도 무언가 힌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더불어 “진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보라.”고도 한다. 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약간 진지하게 사는 편이다. 평소에도 자주 미래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 책은 내가 살면서 행복에 대해 느낀 점을 적절히 정의 내리고 말로써 표현해준다. 또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소한 행동과 생각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말처럼 이 책이 나에게 행복에 대한 정답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행복에 대해 확실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이다. 자신이 행복하지 의문감이 드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 영화 제목 : 시바하
- 영화 감독 : 장재현

2015년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엑소시즘이란 소재를 다룬 영화 <검은 사제들>로 큰 이목을 끌었던 장재현 감독이 더욱 강렬한 소재를 들고 돌아왔다. 보고 난 뒤 온갖 해석과 추측이 난무했던 영화 <곡성>의 2편이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소 난해하고 불친절한 영화. 하지만 122분이란 상영시간 동안 한순간도 스크린에서 눈을 눴 수 없던 영화 <시바하>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영화의 첫 장면은 1999년 한 여인이 쌍둥이 자매를 낳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조금 먼저 태어난 언니, 영화에서 ‘그것’이라 불리게 되는 아이의 상태가 매우 괴기스럽다. 어른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채 방 한구석에 놓인 ‘그것’을 보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죽지 않았다. 금화의 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조차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금화는 ‘그것’에게 한쪽 다리를 뜯어 먹

한국 오컬트 영화의 ‘등불’

힌 채 태어났다. 그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장애를 얻게 된다. 금화의 다리는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금화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금화네 가족이 새봄개 이사 오자 집 주변 농장의 소들이 단체로 폐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농장 주인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무당은 이사 온 금화네 가족이 문제라며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이런 일이 익숙한 듯 금화네 가족은 더욱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척한다. 그리고 영화는 집 한편에 있는 창고를 비추며 그 안에 ‘그것’이 감금된 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화네 할머니가 밤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를 때, 금화네 집에 찾아왔던 무당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몰래 ‘그것’이 갇혀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창고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과성이 흘러나오고, 무당은 창고 밑으로 나온 뱀에게 물려 도망가고 만다. 이후 박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박 목사는 극중 종교문제 연구소를 운영하며 사이비 종교, 이단을 찾아 칼럼을 써 돈을 버는 인물이다. 영화 초반 대학 강의실에서 자신의 후원계좌를 홍보하거나, 사무실 앞에서 농성하는 수녀들에게 달걀 세례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비싼 코드를 걱정하는 모습,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와 전혀 다른 괴짜다운 모습으로 비친다. 그야말로 돈이 최고인 박 목사에게 필요한 건 더욱 자극적인 기사 소재였다. 그런 박 목사의 눈에 댄 신홍종교 단체 ‘사슴 동산’. 박 목사의 후배인 고요섭 전도사에게 잡임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보라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

은 없어 보인다. 문제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박 목사의 말에 둘은 경전을 찾기 위해 사슴 동산 건물에 숨어들어 가게 된다. 결국 박 목사는 사대천왕이 김제석을 지켜내기 위해 영월에서 태어난 소녀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김제석의 뒤를 쫓는다.

영화 끝에 ‘그것’이 마력으로 변하고 네츨렌과 마력이라 말했던 김제석 대신 자신을 마력이라 칭하며 정나환에게 김제석을 죽이라 말한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멸한다는 김제석이 쓴 영화 속 경전의 구절처럼 김제석의 죽음과 함께 ‘그것’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는 프레임이 전반부 기독교에서 후반부에 불교로 바뀌는 영화이다. 이것은 ‘뱀’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뱀이 악으로, 불교에서는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객들을 당연히 금화의 언니가 무서운 존재라 속을 수밖에 없다. 후반부 마력으로 불리던 김제석의 목숨이 자신을 악으로 몰아갈 때 금화의 언니는 점점 마력이 되어가며 반대 상황이 된다.

마지막에 확실한 결말을 보여준 않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절대적 악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이란 존재 또한 그러한 인간의 믿음에서 발원한다는 것.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살인은 애국”이란 극 중 대사처럼 자신이 어떤 것을 믿느냐,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선과 악은 순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영화 <시바하>, 이번 주말 영화로 강력히 추천해 본다.

박가희 기자
pgh0419@naver.com

친환경, 패션이 되다



▶그리다(GREEDA) 가방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오염,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인해 줄어드는 각종 해양생물자원까지. 환경파괴로 일어나는 심각한 피해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요즘,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환경을 위해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패션 업계도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2019년 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독자들이 주목할만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플리즈 마마

2018년 6월 15일 론칭된 브랜드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패션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다룬 The New Yorker 기사의 한 대목인 ‘Look Chik, Be Eco!’를 설립의념으로 삼고 있다. 멋지고 실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버려진 ‘플라스틱’이었다. PET 병과 같은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1000년이 넘게 걸린다. 플리즈마마에서 니트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사 ‘리젠’은 효성그룹에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버려지는 폐 페트병의 유용 성분을 추출하여 재활용한 것이다. 이 원사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및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석유 자원을 절약하는 환경친화적 제품

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리젠은 재활용 섬유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컨트를 유니언 인증을 획득했다. 플리즈마마 가방 하나에는 대략 500ml PET 병 16개 정도가 사용된다. 그리고 플리즈마마의 모든 가방은 니트 공법으로 만들어져 원단을 재단하여 봉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성형하여 편직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인해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버려지는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INOAC에서 개발된 자가 접착식 완충 포장재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재와 배송용 박스의 기능을 통합해 배송하고 있다.

#그리다(GREEDA)

국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사회적기업 상품을 유통하는 큐레이션 플랫폼(편집매장)인 아트 임팩트(ARTIMPACT)에서 소개하는 그리다(GREEDA)는 천연 가죽의 웰리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친환경 에코 브랜드이다. 최근 모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유명 브랜드들이 잇따라 모피 사용을 금지하는 ‘퍼 프리(Fur Free)’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죽의 대안으로 나온 기존의 페이크 레더(인조가죽)는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품이 사용되고 가죽 본연의 성질이 전혀 없이 웰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가격이 저렴해도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천연가죽을 선호하고 있다.

천연 가죽 역시 모피와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서 여전히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천연 가죽은 채취되는 부위에 따라 두께나 스트레치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쓰이는 부분만 쓰이고 상당 부분이 버려지게 된다. 이때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가죽 폐기물들만 해도 연간 ‘80만 톤’ 이상이라고 하니 그 처리 과정에서 가죽은 또 한 번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그리다가 사용한 친환경 재생 가죽이란, 위와 같은 천연가죽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죽 스크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특수 가공 기술로 재가공해내어 천연 가죽의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 천연 공법을 사용한 것을 뜻한다. 이렇듯 그리다는 특수공법이 적용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보다 윤리적인 브랜드로서 가죽제품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가고 있다.

#스텔라 맥카트니

친환경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엘라 맥카트니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스티엘라 맥카트니의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이다. 영국의 밴드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딸로 더 세상에 알려져 있던 그녀는 21세란 젊은 나이에 클로에 디자이너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녀의 성공이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그녀가 2012년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을 맡게 되자 대중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 린다 맥카트니에게 영향을 받아 비거니즘을 실천하며 동물에게서 온 모피, 가죽 심지어 동물 화학실험 제품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비거니즘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이면서도 세련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녀가 처음 베지테리언 슈즈를 발표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믿는 신념의 가치를 제품을 통해 선보였고 곧 트렌드가 되었다. 그녀로 인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이 보다 더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17년 런던에서 개최된 패션 어워즈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멋을 위해 소비되었던 과거의 패션과 달리, 환경을 향한 자신의 소신 있는 소비의식이 더해진 오늘날의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자. 패션은 외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만일 자신이 환경에 관해 경각심을 느낀다면, 혹은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여기에 소개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사진 출처 - 텀블벅-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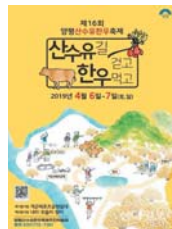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플리즈 마마, 진짜보다 참나는 에코브랜드 그리다, 네이버블로그 한국환경공단 박가희 기자
pgh0419@gmail.com

축제·공연·소식



제주 유채꽃축제

- 기간 : 2019. 04. 04(목) ~ 2019. 04. 07(일)
- 장소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41
- 주최 : 서귀포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 기간 : 2019. 04. 06(토) ~ 2019. 04. 07(일)
- 장소 : 개군면 레포츠평원
- 주최 :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 추진위원회



신안 튜립축제

- 기간 : 2019. 04. 12(금) ~ 2019. 04. 21(일)
- 장소 : 신안튜립공원
- 주최 : 신안튜립축제위원회



고려산 진달래축제

- 기간 : 2019. 04. 13(토) ~ 2019. 04. 21(일)
- 장소 : 고려산 일대
- 주최 : 강화군



비슬산 참꽃문화제

- 기간 : 2019. 04. 20(토) ~ 2019. 04. 21(일)
- 장소 :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 : 달성군



군포 철쭉축제

- 기간 : 2019. 04. 24(수) ~ 2019. 04. 28(일)
- 장소 : 철쭉동산, 철쭉공원, 시민체육광장, 문화예술회관, 노자로드 등 군포시 일원
- 주최 : 군포시



함평 나비대축제

- 기간 : 2019. 04. 26(금) ~ 2019. 05. 06(월)
- 장소 : 함평곤악스포공원
- 주최 : 함평군

4.19혁명,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다



▶수송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시위대에 총을 겨눈 경찰들

4월의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면 대부분 4·19 혁명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4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피로 지켜낸 빼어난 민주주의의 역사, 4·19혁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1960년 4월, 전국에서 이승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마산 앞바다에 한 학생의 시신이 떠오른다. 시신의 정체는 4월 11일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된 16세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었다. 최루탄을 눈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로 마산 앞바다에 버려진 김주열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4·19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1960년 3월 부정선거가 극에 달하였다. 이때 실제로 많은 공무원이 이승만의 당선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이전의 선거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후보자 등록·선전활동·투표 과정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내무부와 각 도의 경찰이 이제 실질적인 선거본부가 되어 투표 총계를 조작하고 날조하였

던 것이다. 1960년 많은 국민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의 죽음으로 다시 실망에 빠졌다. 조병옥은 선거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대적자로 여겨졌었다. 다른 강력한 대적자가 없는 마당에서 이승만의 재선은 확고한 것이었다. 이승만의 노령으로 부통령의 경합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실제 싸움은 현직 부통령인 장면과 이승만이 밀어주는 후보자 이기붕 사이에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선거가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반정부 시위가 선거 전후 전국에 걸쳐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나섰던 것이다. 민심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이반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의 봉기에 필요하였던 것은 도덕적 분개라는 공통된 감정을 점화시켜줄 수 있는 사건만 있으면 되었다. 4월 초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항구 도시인 마산의 시민들은 최루탄을 눈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로 마산 해변가에 버려진 16세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 소년은 부정선거를 규탄하

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마산 경찰에 의하여 체포당했음에 틀림없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계속된 독재

4·19혁명 전 수 주일 동안 주로 지방 도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법선거 및 자유당과 경찰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황의 급박성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다. 마산에서의 시위에 대하여 이승만은 4월 15일, 그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런 사태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무분별한 사람들”의 죄는 간파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승만은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하고, 선통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승만의 이런 견해는 협박과 강제력 행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학생들을 더욱 격노하게 하였다. 4월 19일 약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데모대에 대하여 발포하기 시작했으므로 학생들의 시위는 폭동으로 화하였다. 전국적으로 부산·광주·인천·목포·청주 등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하였다. 서울에서만도 자정까지 약 130 명이 죽고, 1,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반포되었다.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중장 송요찬이 서울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독재자를 몰아내다

4월 19일 이후 시위와 폭동이 연일 계속되었다. 이제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도 가담하였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사태를 경계하고 재산의 파괴를 방지하는 데 신경을 쓰면서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승만은 반정부 시위에 관하여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월 21일 내각이 전국의 혁명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다음날 이승만은 당시 정부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가지지 않은 2명의 정치인을 불러들였다. 한

사람은 전 국무총리였던 변영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 서울시장이었던 허 정이었다. 이승만은 이들에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간청하였다.

이승만은 이기붕을 설득하여 모든 정치 활동으로부터 물러나도록 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이어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장면은 부통령으로서 자기가 이승만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한, 이승만은 결코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시위대들은 새로운 선거의 실시 대신에 이승만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승만은 자기가 자유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와 결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시위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점점 더 광포해지기 시작하여 반공청년단과 자유당 간부의 집을 파괴하고 방화하면서 다녔다. 4월 25일 시위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각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4월 26일 새로 지명된 외무부 장

관 허정과, 계엄사령관 송요찬,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였던 맥 카나 기(Macanarghy, D. P.)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승만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가 새로 시행될 것이고, 헌법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경찰력에 의하여 유지되었던 정치권력이 대중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경찰력이 자유당의 주요 골격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4·19혁명 후 경찰력의 마비로 인하여 자유당이 하룻밤 사이 붕괴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다. 교수들의 시위로 시작된 시위의 새로운 물결,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경찰력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으로부터의 지지 결여 등등에 직면하여,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사진 출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pgh0419@gmail.com
박가희 기자

4월, 동서대학의 봄

개강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흐른 지금, 4월이 됐다.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지만 우리의 눈앞에는 벌써 꽃들이 꽃봉오리를 만개하고, 분위기는 화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꽃들은 무슨 의미를 지녔으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부터 4월의 봄을 알리는 꽃에 대해 알아보자.



벚 나 무

벚나무의 꽃말은 '결박, 정신의 아름다움'이다. 벚나무의 꽃은 4~5월에 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피며 2~5개가 산방상 또는 총상으로 달린다. 꽃자루에 포가 있으며 작은 꽃자루와 꽃 받침통 및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열매는 등글과 6~7월에 적색에서 흑색으로 익으며 버찌라고 한다. 벚나무는 한국·중국·일본에서 자라며 쌍떡잎식물이다. 벚나무는 우리 학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벚꽃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는 동서대학교 정문, 글로벌 빌리지 옆 동서대학교 후문, 민석 도서관 앞과 민석 도서관 가는 길, 경영관 앞, 전자정보관 앞, 대강당으로 오르는 길, 민석 도서관에서 내려오는 스텔런트플라자 가는 길 등이 있다. 벚꽃이 만개해서 떨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민 들 례 꽃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이다. 특성으로 민들레는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그리고 생육환경은 반그늘이나 양지에서 토양의 비옥도에 관계 없이 자란다. 꽃은 노란색으로 지름이 3~7cm이고, 잎과 같은 길이의 꽃줄기 위에 달린다. 열매는 6~7월경 검은색 종자로 은색 갓털이 붙어 있다. 서양민들레와의 차이는 꽃받침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생 민들레는 꽃받침이 그대로 있지만 서양민들레의 경우는 아래로 처져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서양민들레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다. 어린잎은 식용, 뿌리를 포함한 전초는 약용으로 쓰인다. 만약 민들레 꽃을 관리하려는 경우 관리하기는 쉽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잎이나 뿌리를 식용 혹은 약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주변 오염도가 낮은 곳을 택해야 한다. 민들레 꽃은 동서대학교의 어디에서든지 피어나는 야생화이다.



개 나 리 꽃

개나리꽃의 꽃말은 '희망, 기대, 깊은 정, 달성'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4월에 일찍드람이에 1~3개씩 달리며 꽃자루의 길이는 5~6mm 정도 된다. 꽃잎은 통꽃으로 중간부터 4개로 갈라지며 녹색의 꽃받침은 4개로 갈라지고 털이 없다. 수술은 2개로 암술보다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며 암술대도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낙엽 활엽 관목으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한국 특산식물이다. 또한 개나리꽃은 식용할 수 있는 꽃이다. 효능으로는 해열, 산혈, 해독, 소증, 소염, 이뇨가 있다.

개나리꽃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동서대학교에서 경남정보대학으로 내려가는 길, 전자정보관 앞, 민석 도서관 앞에 예쁘게 피어있다.



목련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다. 목련은 '신이'라고도 한다.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 10m 내외이며 가지는 굵고 많이 갈라진다. 잎에는 털이 없으나 꽃눈의 포에는 털이 밀생한다. 잎은 넓은 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으로 끝이 급히 뾰족해지고 앞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털이 없거나 잔털이 약간 있다. 꽃은 4월 중순부터 잎이 나기 전에 피는데, 지름 10cm 정도이고 꽃잎은 6~9개이며 긴 타원형으로 백색이지만 기부는 연한 홍색이고 향기가 있다. 3개의 꽃받침조각은 선형으로 꽃잎보다 짧으며 일찍 떨어진다.

목련은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앞, 동서대학교에서 경남정보대로 내려가는 길, 민석 도서관 앞, 대강당 앞 등 벚꽃과 함께 볼 수 있다.



삼 색 제 비 꽃

삼색 제비 꽃말은 '사색'이다. 분포는 한국이며 관상용 재배를 한다. 특징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V.tricolor L. 과 근연종을 교잡시켜 만든 1년~2년생 관상식물이다. 잎은 어긋나기하고 엽병이 길며 난상 긴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고 둔한 톱니가 있다. 탁엽은 엽병보다 길고 우상으로 길게 갈라진다. 꽃은 4~5월에 자색, 황색, 백색의 꽃이 같이 피며 일찍드람이에서 긴 화경이 나와 그 끝에 한 개의 꽃이 옆을 향해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5개로서 녹색이고 꽃잎도 5개로서 등글며 옆으로 퍼지고 고갈부가 짧으며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삼색제비꽃은 대강당에서 내려오는 평지 화단에서 볼 수 있으며 동서대학교 화단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데 이 지

데이지의 꽃말은 '희망, 평화'이다. 데이지는 쌍떡잎식물 국화 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특징으로는 유럽 서부지역이 원산이라는 점이다. 원종은 한국에 흔히 자생하는 민들레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주걱처럼 생겼으며, 키가 작고 로제트형으로 자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데이지는 사스타데이지, 달버그데이지, 글로리오사 데이지, 케이프 데이지, 아프리카 데이지, 잉글리시 데이지 등이 있다. 보통 데이지라고 하면 잉글리시 데이지를 말한다. 또한 한국의 봄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초화류에 속한다.

데이지는 민석 도서관에서 스텔런트플라자로 내려가는 길 등에서 볼 수 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soo4793@gmail.com
이주원 기자

■ 인터뷰1-컴퓨터공학부(4) 서재식 학생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컴퓨터공학부 서재식



▶UbSE 연구실

세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설렘이 가득한 3월을 지나쳐 이제는 4월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여전히 새로운 캠퍼스에 적응 중일 것이고 재학생들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제 4학년이 된 학생들은 졸업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일 것이다. 다음 취업자 인터뷰를 통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내보자.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전공 13학번 서재식입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취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A. 일단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빠르게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취업과 진로라는 교양 수업을 접하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요령을 터득하여 저만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면서 더 좋은 표현으로 저만의 스토리를 적으려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이후 4학년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 기사 시험을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Q. '에프원소프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저희 회사는 '에프원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회사는 각종 의료 사업 부분에서의 각종 솔루션 구축 및 개발,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부서에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교내의 활동을 한 적 있으신가요? 한 적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하셨나요?

A. 교외에서는 많은 활동이 없었지만, 교내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학부 내 연구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다른 전공 학우들과 친분을 많이 쌓기도 하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 활동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도우미 역할을 해준 중요한 부분이었다 것 같습니다. 교내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과들도 거두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생활에서 가장 잘 한 것이 있다면?

A.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가리지 않고, 다른 학우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곧 재산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행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맞춰서 행동과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Q. 반대로 후회한 것이 있다면?

A. 공부를 할 때 너무 학점을 쫓아서 공부를 했던 것이 후회되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을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공부를 너무 틀에 박힌 시험 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 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는 게 있는 실용적인 자신의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으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선배 한 분과 연구실 친구들, 교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막 다녀오고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컴퓨터공학부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학을 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선배 한 분이 먼저 다가와서 친해지고 같이 수업도 들으며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어 교수님과 선배,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현재 19학번 신입생들이 동서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교내에서 해야 할 일만 하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틀에 박혀 있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합니다.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니까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세요. 도전을 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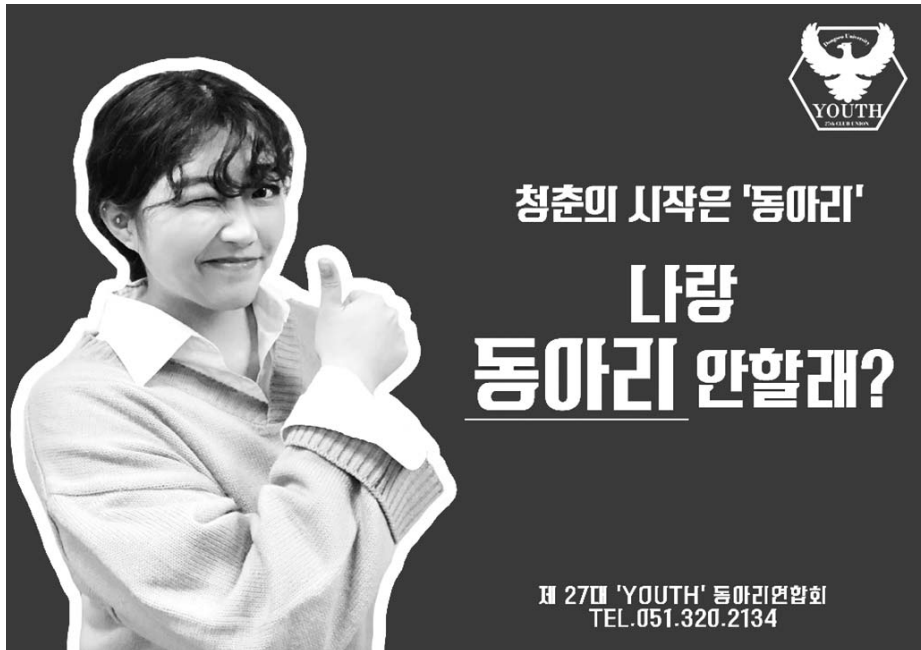
A.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후배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것에 항상 도전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후회했던 공부야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하고 바랄게요.

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을지라도 후회는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이고 후회가 아니더라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컴퓨터공학부 서재식 학생 또한 학창시절 동안 노력했었을 테지만 돌아켜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지난 대학교 생활을 돌아켜보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혹은 본인이 신입생이 라면 앞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 제27대 'YOUTH'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민지

‘당신들을 위해 존재하며 언제든지 고민과 요청사항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YOUTH'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민지 학생



▶ 'YOUTH' 동아리연합회 단체사진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연합회가 있다. 바로 동아리연합회 'YOUTH'이다. 동아리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연합회 회장 김민지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제27대 'YOUTH'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민지입니다.

Q. 동아리연합회는 언제 창설되었나요? 동아리연합회 YOUTH로 이름을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A. 1983년에 1대 동아리연합회가 창설 되었으며 현재 저희는 27대 동아리연합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YOUTH는 넓은 의미로 정춘, 젊음을 의미합니다. '정춘의 꽃은 동아리! 당신의 정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우리 동아리연합회의 슬로건과 맞게 지은 이름입니다. 동아리원들의 정춘의 향연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YOUTH라는 명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짓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름과도 겹쳐라고요 하하 저희의 YOUTH와 동아리원들의 YOUTH에 한편에 있을 수 없는 일 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Q.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작년 26대 누리 동아리연합회에 국장으로 지원하여 일 년간 기획국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장으로 동아리원들과 지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경험으로 얻는 배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으로서 일 년 동안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동아리들을 위해 더 일하고 싶었고 일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회장으로서 잘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아리 생활을 했던 신입생 친구가 임기가 끝난 후 고마웠다고

덕분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냈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보내주는 편지 한 통이 제가 회장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말이 길어졌지만 역시 제일 큰 이유는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지난 3년간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Q. 동아리연합회의 하는 일이 궁금해요. 회장직은 어떤 일을 담당하시나요? 업무별로 답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은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들의 복지를 위해 일을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와 동아리 간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율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주최를 주로 합니다.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6명의 국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국장은 전체적인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외부사업추진 및 장소 대여를 담당하는 연대사업국, 행사의 전체적인 기획을 맡는 기획국, SNS를 통한 홍보 및 홍보 포스터 제작을 전담하는 홍보국, 동아리전용 카페관리와 비품 수리 및 인터넷 IT 연결을 담당하는 IT 국, 동아리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각 국장이 맡은 바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체적인 사업 진행의 지시를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자 회의를 통한 논의사항을 학교와 함께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Q. 동아리연합회는 동서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총 관리하시나요?

A. 우리 동아리연합회는 동서대학교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28개의 중앙 동아리를 관리하게 됩니다. 3개의 자치구가 합의를 학생회비를 각자의 예산안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학생회비로 진행이 되지만 동아리 반 관리 및 동아리만을 위한 사업에는 중앙동아리

등록 시 납부하게 되는 등록비를 함께 사용합니다. 해당명세는 매월 진행되는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가 되며 회의가 끝난 후 사용명세 및 통장 사본을 동서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Q. 새로운 동아리를 창설하고 싶다면 동아리연합회를 방문하여 창설신청서를 제출하나요? 동아리를 창설한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동아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가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등록의 기본 자격요건인 정회원 15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한 분기 이상의 활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동아리와 같은 취지의 동아리는 가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중앙동아리의 투표를 통해 가동아리로 등록이 되면 활동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 제출해야 합니다. 가등록 동아리로 한 분기 활동을 인정받게 되면 정식 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3개 학부 각 5명 이상 총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 만족 시 중앙동아리의 투표를 통해 정식 동아리로 등록 가능합니다. 가등록이 매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해진 가등록 기간에 가능합니다. 가등록 공고가 나가는 학기 초에 맞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앞으로 동아리연합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길 계획과 다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제가 회장을 하면서 중심으로 잡은 목표가 믿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존재하며 언제든지 고민과 요청사항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한 동서대학교 동아리 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동아리에 소속감을 느끼고 각 동아리도 소속감을 바탕으로 뭉쳤으면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 년은 동아리와 가까워지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주기! 다 함께 웃으면서 동아리를 떠돌았을 때 행복한 동서대학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정효진 기자
jhn2087@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사자 우리 안의 젊은이, 다니엘



▶사자들에게 둘러싸인 굴 속의 다니엘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크리에이티브'

경건함과 지혜로움을 가진 이스라엘의 예언자

다니엘서는 구약성서 중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자주 읽는 책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는데, 주인공이 매우 도덕적인 젊은이인 데다 역경을 헤치고 나가 승리하

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옛날 주일학교 노래인 「다니엘처럼 용감하게」는 아이들에게 평소에 깨끗하게 살면 어려움을 맞았을 때 신이 지켜봐 준다는 믿음을

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로니아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갈 때 함께 끌려간 유대인 망명자였다. 네 명의 매력적이고 똑똑한 젊은 이들은 바벨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궁정에서 시종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은 네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 나오는 모란 꿈을 꾸었다. 궁정 미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이 나서서 그 금속들은 미래의 네 왕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성서학자들은 어느 금속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를 놓고 2천 년 동안이나 갑론을박을 벌였다. 하지만 우리는 조각상의 순금 머리가 네부카드네자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다니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 공로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왕이 세운 커다란 황금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경에 빠진다.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이었기에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시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속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왕은 또 다른 사람, '신들의 아들'과 닮은 사람이 풀무불속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그 넷째 인물이 천사 혹은 신이라고 추측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수백 년 뒤 실제로 탄생하기 전에 '맛보기'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도 있다. 구약성서 외경 가운데는 '세 청년의 노래'라는 짧은 책이 있는데, 풀무불속에 들어간 세 젊은이의 기도라고 전해진다.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Benjamin Britten)은 '뜨겁게 타는 풀무불'이라는 오페라를 썼다. 인기 있는 교회곡 「풀무불 안에서 시편해」는 이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훗날 네부카드네자르는 또다시 수수께끼의 꿈을 꾸었다. 다니엘은 왕이 미쳐 황아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며 살게 되는 의미라고 해석해주었다. 그의 예언은 현실심이 되었다. 다니엘서에서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은 5장에서 볼 수 있다. 바벨로니아의 지배자인 벨사살은 큰 잔치를 열고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그때 허공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네 단어가 켜졌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다니엘은 그 단어들인 곧 바빌로니아어 페르시아어 제국에게 정복되리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 일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다. 화가들은 화려한 옷차림의 바빌로니아인들이 유럽의 손을 보고 경악하는 장면을 즐겨 그렸다.

페르시아가 들어서자 다니엘은 다리우스(다리오) 왕의 고문이 되었다. 왕은 자신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렸다. 신앙심이 깊은 다니엘이 그에 따르지 않자 왕은 그를 사자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다니엘은 신의 가호를 받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화가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둘러싼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했다. 주변에 해골들이 잔뜩 그려진 그림도 있다.

다니엘서의 7~12장은 앞부분과는 사뭇 다르게 어두운 미래를 서술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과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종류의 글을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부른다(요한계시록을 보라). 요한계시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서를 읽은 사람들은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톨릭 성서에는 다니엘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도 있다.

수산나라는 고결한 유대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이 사제들에게 가짜 신 벨의 사제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도 있다. 다니엘은 처형될 위기에 처한 수산 나라를 구해주고 공정한 사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메네스의 상인'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명재판관이 다시 오셨다."라는 대사는 바로 그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수산나라 다니엘을 주제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다. 다니엘은 또한 헨델의 다른 오라토리오 '멜사살의 잔치'에도 등장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니엘[DANIEL]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제8회 에너지환경 탐구대회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청소년, 어린이
- 응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기타
- 접수기간 : ~2019. 04. 15(월)



- 수강자자녀 인권운동을 위한 세움캠페인 서포터즈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19. 04. 30(토)



- 서울환경영화제 제16회 서울환경영화제 관객심사단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4. 14(목)



- TV CHOSUN 대학생 서포터즈 장군 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모집일정 : ~2019. 04. 28(일)



- 다나와 프리미엄 리포터 1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8. 04. 09(화)



- 2019년 <아디다스 마이드림 FC> 대학생 봉사자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19. 04. 07(일)



- 기아자동차 레드크리에이터 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19. 04. 07(일)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고리에이터 3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4. 17(수)



- 법무부 제12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일정 : ~2019. 04. 14(일)



- 지류캠 공식 서포터즈 우리 가족 '지류주장' 모집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접수기간 : ~2019. 04. 07(일)



-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KCA 서포터즈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4. 19(금)



- 아토피팜 베이비바 21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일반인, 기타
- 공모일정 : ~2019. 04. 14(일)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환 :

경 :

의 :

날 :



요즘 필(必)환경시대라고 하여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N행시는 ‘환경의 날’이다. 학우 여러분의 센스 있는 N행시를 기대해본다.

예시)

환 : 환경의 날은

경 : 경의는 물론

의 : 의미가 있는 날이고 이 날뿐만 아니라

날 : 날마다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 4월 26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